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가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해 예방을 위해 검토 중인 신안철교 재가설 계획에 따른 광주역 열차운행 중단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 철도노조 “신안철교 재가설로 광주역 열차운행 중단 반대”

수해 예방 차원 재가설 계획에 “임시 우회선로 설치해야”

광주지역 철도노조가 수해 예방을 위해 검토 중인 신안철교 재가설 계획에 따른 광주역 열차 운행 중단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는 광주역 열차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임시 우회선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선(광주역~광주송정역) 신안철교 및 서방천을 중심으로 잦은 수해가 발생하면서 신안철교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따”라며 “광주 북구는 서방천 범람 원인이 신안철교의 경간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2차례에 걸쳐 재가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신안철교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임시선 활용과 운행선 유지, 광주선 전면 차단과 같은 방안 중 공사기간 장기화 등을 들어 광주역 전면 차단 이후 재가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광주역 열차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계획은 수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지역 철도 접근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안철교 재가설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예방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공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교통권을 무시하고 열차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지역 철도 접근성을 크게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신안철교 재가설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예방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공사를 이유로 시민들의 교통권을 무시하고 열차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철도 공사 과정에서 사용 중인 철도에 대해 임시 우회선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없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 편의를 얼마나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효율성과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이동권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사 기간 임시 우회선로 설치와 함께 철도 이용 시민과 지역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안철교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지역에 426.4mm의 폭우가 쏟아질 당시 서방천의 유속을 저해하고 범람을 유발하면서 광주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일대 수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획취재부

지면 안내

- ▶ 작년 세수 1.8조 더 건넸다... 3년만에 대규모 세수평크 탈출 3면
- ▶ 광주시, 광주송정역 승강장 승하차 구간 분리 9면

“설 민심 잡아라” 전남·광주 초대 특별시장 출마 러시

민형배·이병훈·정준호·이개호 의원 출마 선언... 주철현 출마 시사
 현직 강기정·김영록, 신정훈 행안위원장 특별법 이후 링오를 뚫
 민 8과전 “통합은 생존전략” 한목소리... 野, 후보 단일화 관심사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가시화된 가운데 6월 지방선거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초대 특별시장 입지자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민주당 계파 갈등과 합당 논란 속에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까지 겹치면서 서둘러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통합은 생존 전략”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가운데 도시와 농어촌 표심을 동시에 잡기 위한 ‘킬러 공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가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대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8명을 포함해 여·야 통틀어 10여 명에 이른다. 출마선언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2일 민형배 의원을 시작으로, 이들이 밀다하고 이어지고 있다.

민 의원은 ‘세계 최고 신성장특별시장’을 목표로 성장·균형·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의 5대 통합 원칙을 제시했다. 권역별로는 광주(AI), 동부(신산업), 서부(에너지), 중부(전환경제) 등 분야 구조를 통해 ‘남부권 성장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안 정치적 궤를 같이해 온 인연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실속을 챙길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은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법을 설계할 수 있는 ‘책임지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전남의 비전과 광주의 희망을 통합해 ‘말’이 아닌 ‘실적’로 변화의 높이를 증명하겠다”는 약속했다. 5·18민주광장이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권역별 5대 발전전략도 제시하며 설 민심을 선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젊고 담대한 변화를 외치며 AI 대전환을 위한 ‘3+1전략’을 핵심공약으로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믹스 구축, 광주공항 부지의 로보틱스 거점화, 영산강 축의 ‘호남 퓨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5년 25조원의 지원금과 시민 미래펀드를 결합, 10년 안에 인구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과격적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당 4선 중인 이개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남부 수도를 건설, 다시 호남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31년 공직생활과 4선 중인 의원의 경험, 장관직 수행 등 검증된 정책 역량과 국정 경험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력요금 차등제 등 에너지 자주권 실현을 포함한 3대 과제와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동부권 주자 주철현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전남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특히,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2월 말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후보 등록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시장, 지사 후보로 각기 등록해야 하나,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이 큰 데다 현직 프리미엄도 줄어들 수 있어 등록은 최대한 늦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장이 민주당 3선 신정훈 의원이 특별법 통과 후 출마선언과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시장, 도지사, 행안위원장은 대선 40년 만의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현상 가운데 서서 큰 물줄기를 잡으며 실무 작업과 공론화, 대정부 특례 전정의 큰크로더워 역할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흡군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우주항공축제위원회